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절기절약, 대한민국을 뜨겁게 합니다 http://www.mke.go.kr

'12년 8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절약정책과 나기용 과장(2110-4872), 김정대 서기관(4873)
이혁재 사무관(5431)
에너지절약협력과 나성화 과장(2110-3935), 오재철 사무관(3936)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6050-3811), 임은정 연구원(3806)

하절기 최대 전력피크기간 앞두고, 3기 「국민발전소」 본격 가동

- 전력사용량의 50%를 넘는 산업 현장에서 절전경영 보고대회 시작 -
- 제3기 「국민발전소」(8.13~17) 건설 주간 시행 -

추진배경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폭염속 전력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8.13(월)부터 8.17(금)까지를 제3기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

○ 하계 최대전력피크 기간(8월 3~4주)를 맞아 경각심을 고취하고 절전 동참을 촉구함으로서 전력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 최근 10년 동안 8월 3~4주에 하계 전력피크 6번 발생

○ 8월 3주~4주의 예비전력은 수요관리 등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200만kW이하로 전망되어 특단의 전력수요관리가 필요

* 기온 1~2℃ 상승에 따라 전력수요는 150만kW까지 증가 가능 ⇒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예비전력은 예상치보다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음

○ 산업계 휴가일정·조업 조정 등의 수요관리 대책과 아울러,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을 통해 범국민적인 절전노력 지속 추진

1, 2기 국민발전소 성과(6월, 7월)

□ 6월부터 추진해 온 「국민발전소」, 「아싸! 가자」 운동에 국민이 적극 동참하여, 6월에 화력발전소(50만kW급) 3기, 7월에 1기를 건설한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 4)

① (피크 절감) 1, 2기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으로 피크시간대(14~17시)에 국민의 절전 실천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6월에는 피크시간대 일일 평균 166만kW, 7월에는 62만kW 피크절감 효과 발생

* 6월 피크절감량 166만kW는 화력발전소 50만kW급 3기에 해당하는 규모

② (전력소비 절감량) 6월~7월 2개월 동안에 7억 62백만kWh의 전력소비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

- 6월에는 5.87억kWh(6월중 총 전력소비량 402억kWh의 1.4%)의 전력소비 절감 효과가 있었고, 7월에는 1.75억kWh(7월중 총 전력소비량 402억kWh의 0.4%)의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 6월 전력소비 절감량은 제주도 2개월 전력소비량에 해당되며, 7월 전력소비 절감량은 15일분에 해당하는 양 (제주도 월평균 전력 소비량('11년) : 3억kWh)

- 전력소비 절감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6월 829억원, 7월 248억원 등 총 1,077억원의 절감효과 발생

* LNG 복합발전소에 지급한 전력거래단가 ('11년 141.36원/kWh)적용

③ (분야별 절전사례) 사회 각 분야로 절전의식이 확산되어, 전국 시중은행(77개)의 '12. 6월 전력소비량이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하고, 백화점 및 쇼핑센터(280개)의 전력소비량도 6% 감소 (참고 6)

* 한전 고객 대상(1,558호) 절전현황 및 인식조사('12.7.16~7.18(3일간), 한전)

3기 국민발전소 주요 행사

□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 3주와 8월 4주가 하절기 최대 전력피크기간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3기 국민발전소 건설 운동을 8.13(월)부터 시작하면서,

○ 전력 피크사용량의 절반이상(54%)을 사용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절전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별 전력위기시 대응 체계를 점검함

<절전경영 보고대회 행사개요>

① 일시·장소 : 8.13(월), 14:00~15:30 /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② 참석자 : 지경부장관, 대한상의부회장,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전자, SK에너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SK하이닉스 등 17개 기업대표

□ 이번 보고대회에서 산업계는 전력피크기간 동안에 ①전력 위기대응 훈련 강화, ②전사적 참여활동 및 사무실 절전운동 지속 추진, ③생산현장 에너지효율화 등을 통해 절전활동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산업계 절전운동 추진계획 >

* (전력위기대응훈련 강화) ①전력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 실시, ②사내 정전 대비 위기 대응훈련 실시 등
* (전사적 참여활동) ①휴가일정 조정, ②냉방온도 26℃ 유지, ③전력피크시간 의무절전, ④대기전력 절감, ⑦점심시간 및 오후 8시 이후 조명 소등 등
* (생산현장 에너지효율화) ①미가동 설비 전원차단/공회전 방지, ②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 설치, ③인버터 등 전력절감장치 도입, ④자가발전기 추가가동, ⑤빙축열 시스템 도입, ⑥공정설비 정기 수리기간 하계 집중 등

□ 이날 기업사례 발표자로 나선 삼성전기는 피크 전력 목표 관리제, 매월 절전 위기극복 비상훈련(2회 기실시), 주요 생산설비 에너지 효율 등급제 시행 등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절전경영 추진현황을 발표하였고,

* 삼성전기는 6월부터 매월 절전 위기극복 비상훈련(2회 실시)실시하여 피크전력 0.9만kW 감소효과를 봄

○ 현대제철은 전력예비율 위험 단계별 단위공장 가동 중단 프로그램, 당진 제철소 자가 발전 사용계획 등을 소개함

- 전력수급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최종단계시(200만kW 이하시)에 86만kW 전력절감 체계 구축

○ 또한, LG전자는 2만 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전력사용 모니터링 및 고효율 에너지 저감 설비 설치 등이 패키지화된 에너지 관리 통합 솔루션을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편의점에 통합 솔루션 적용시 : 전력절감(kWh) 29%, 전기료 절감(원) 27%

□ 절전경영 보고대회가 끝나고, 삼성전기는 전체 소요전력의 25%를 절감하는 전력피크 대응 모의훈련을 에너지 상황실에서 직접 시현함

* 모의훈련 시나리오 : ①400만kW↓(관심단계) : 사무동 조명 완전소등 → ②300만kW↓(주의단계) : 사무동 및 공장 공조기/에어컨 정지 → ③200만kW↓(경계단계) :생산설비 등에 소모되는 한전 전력 대체하는 보조(비상)발전기 가동 → ④100만kW↓(심각단계) : 비생산시설 전원차단

□ 산업계 절전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는 3기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에는 에너지업계, 문화계 등으로 절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뤄짐

○ 8.14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에너지시설안전 개선 대책 및 에너지기업 CEO 안전선언문 발표행사」가 개최되어,

- 하계 전력피크기간중 에너지시설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전력공급 차질 방지 및 철저한 대비를 약속하고,

○ 8.16일에는 "저탄소·에너지 고효율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 저탄소고효율 제품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의지 고양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을 유도

○ 8.17일에는 「절전 우수제품 보급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절전 우수제품 보급*을 통한 공장·빌딩·가정 등에서 낭비되는 전력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절전제품 보급 세제·금융 확대, 절전기술 R&D 투자 확대, 전력다소비 제품 효율관리 강화 등

□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3기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시행 첫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6월, 7월의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힘

○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모아 8월 3~4주의 하절기 최대전력피크 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함

<참고 1> 제3기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일정
<참고 2> 산업계 절전경영 보고대회 행사 계획
<참고 3> 우수기업 절전경영 추진사례(삼성전기, 현대제철, LG전자)
<참고 4> 국민발전소 절전효과 분석
<참고 5> 하절기 국민 절전의식 조사결과
<참고 6> 주요시설 전력소비 실태 조사결과

참고 1 제3기 『국민 발전소』 건설주간 행사 일정

일자	주요행사 · 홍보 일정	비고
8.13 (월)	기업 절전경영 보고대회 (14:00~15:30,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지경부 장관
8.14 (화)	에너지시설안전 개선대책 발표 행사 (15:00~16:30,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국무총리 지경부 장관
8.16 (목)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예술의 만남" 전시회 (Carbon Footprint Gallery in Seoul) (16:30~17:00, 서울 종로인사아트센터)	지경부 2차관
8.17 (금)	절전 우수제품 보급 촉진방안 간담회 (14:00~15:30,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지경부 2차관
8.13 ~18	TV 캠페인 (약 30회)	방송 3사
	라디오 캠페인 (약 60회)	TBS교통방송 SBS, CBS 등
	신문광고 (약 10회)	-
	전력수급시계 가동 [3.4만개소]	지하철역, 공공기관 전광판 등

참고 2 산업계 절전경영 보고대회 행사계획

□ 추진배경

○ 전력수급 비상기간이 개시되는 8.13일에 맞춰 그간 주요기업의 절전경영 사례와 전력피크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피크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경제계와 함께 절전경영 의지를 다짐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8.13(월), 14:00~15:30/삼성전기 수원사업장(수원 영통)

○ 참석자(25명)
- 지식경제부 장관,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 삼성전기 최치준 대표 등 주요기업 임원(17명)
- 관련 산하 협회 및 기관

□ 주요 내용

○ 주요기업 절전경영 추진현황 발표 및 하계 전력피크대응방안 공유
○ 삼성전기 에너지상황실 시찰 및 모의 전력피크대응훈련 시연

□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55~14:00 ('05)	장관 도착 및 이동(1층→4층)	파워미팅룸(A1동 4층)
14:00~14:05 ('05)	인 사 말 씀	장관
14:05~14:25 ('20)	절전경영 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	대한상의(총괄 보고) 삼성전기, 현대제철, LG전자
14:25~14:55 ('30)	하계 전력피크 대응방안 토론	참석자 전원
14:55~15:00 ('05)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A1동 로비)
15:00~15:10 ('10)	장소이동 (버스 이용)	(A1동 → 기후에너지센터)
15:10~15:30 ('20)	에너지상황실 시찰 및 전력대란 대응 피크제어 훈련 참관  실시간 전기사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시연, 전력수급 5단계 절감시나리오 브리핑 포함	참석자 전원 *삼성전기 측에서 모의 전력피크 (약5천kw 전력 절감) 대응훈련 시연 준비

[붙임] 참석자 명단

구 분	기업/기관명	직책	성명	비 고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경제 단체 (2명)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지속가능 경영원장	박태진	
기업 대표 (17명)	삼성전기	대표	최치준	
		부사장	구자현	
		상무	김우성	발표/시연
	포스코	상무	성기웅	
	삼성전자	상무	이기학	
	SK에너지	팀장	백장현	
	현대자동차	이사	이봉주	
	현대제철	이사	김경식	발표
	SK하이닉스	상무	정윤영	
	웅진홀딩스	상무	김상헌	
	OCI	상무	김기홍	
	S-OIL	상무	김평길	
	STX조선해양	상무	변구근	
	호남석유화학	이사	김연섭	
	효성	상무	권태수	
	LG전자	상무	김용환	발표
	한화케미칼	본부장	최규동	
협회 (2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박영탁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사	강홍식	
관련 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김인수	

참고 3 **우수기업 절전경영 추진사례(삼성전기, 현대제철,LG전자)**

1 삼성전기

○ 피크전력 및 일일 사용량 목표관리 실시



※ Data : 해당年 1월~7월 기준, 단) '11년 Peak전력은 1월~12월 기준임.

○ 절전 위기극복 비상훈련실시(훈련 시 절감율 : 9%↓(9,138kW↓)

□ 절전 위기 대응 훈련 실시 (6/22, 7/24, 월1회)

자율 절전훈련	· 단계별 행동 Process 운영 · 부서별 담당자 운영 (현장 Patrol) · 사무실,휴게실 전등 및 사무기기 자율절전 · 보조발전기 비상대응체제 유지
전사적 참여유도	· 위기대응 훈련 싸이렌 게시 및 SBC 자막 방송 · 관련자 훈련 참여 메일 발송(녹색경영 ESH 리더, 총무) · 사내방송 송출 및 PC ESCORT 홍보



□ 국내사업장 훈련결과 [Peak 전력 9%↓(9,138kW↓)]

구 분		훈련 前(kW)	훈련 後(kW)	감소량(감소율)	비 고
전 국		64,770,000	62,790,000	1,980,000 (3%)	
삼성 전기	수 원	21,665	16,355	5,310(25%)	당사 사용량은 전국 比 0.16%이며, 감소량의 0.46%기여
	세 종	21,500	20,000	1,500 (7%)	
	부 산	58,102	55,774	2,328 (4%)	
	합 계	101,267	92,195	9,138 (9%)	

○ 설비 에너지 효율등급제 시행(20kW↑ 설비 15% 중 전력용량 72% 점유, 대상 2,060대)

기여효율방식



- LCR 1,301台
- 기여효율 = 이론 에너지 사용량 / 실측량 (이론 에너지 사용량은 제품별 불변 값)
- 기여효율방식으로 10등급 구분

점검시트방식



- ACI 759台[FCB 276台,HDI 243台,BGA 240台]
- 기여효율 = 이론 에너지 사용량 / 실측량
- 점검시트 = 절감 개선가능 항목수/완료 항목수
- 기여효율&점검시트 방식으로 10등급 구분

2 현대제철

○ 전력위기대응 체계

✓ 위험단계별 단위공장 가동 중단 확대로 전력 위기 극복에 동참
✓ 예비전력 200만kW 이하 時, 86만kW 부하 조정 (원전 1기 가동 효과)
※ 2012년 전력 사용량 : 9,064 천MWh (국내 전력사용량의 2%)

위험단계 (예비전력, 만kW)	정부대응 체계	부하 조정 공장	조정부하 (총 사용량 141만kW)	사용부하
준 비 (400~500)	수요관리 시행	철근제강 등 6개 공장	24만kW (17%)	117만kW (83%)
관 심 (300~400)	전압 조정 1단계	철근제강 등 9개 공장	43만kW (31%)	98만kW (69%)
주 의 (200~300)	전압 조정 2단계, 직접부하제어	철근제강 등 15개 공장 (전기로 전체)	65만kW (46%)	76만kW (54%)
경 계/심각 (0~200)	긴급절전 계획단전	전기로 전체, 열연공장 등 34개 공장	86만kW (61%) *고리원전 3호기 : 95만kW	55만kW (39%)

공장 가동

비 가동

○ 당진제철소 발전 현황

❖ 발전설비 현황

구 분	1~4호기	5~8호기
발전설비	400 MW (100 MW × 4기)	400 MW (100 MW × 4기)
투 자 비	5,259 억원	6,998 억원
가동시기	2010년 10월	5,6호기 : 2013년 8월 7,8호기 : 2013년 12월
사용연료	제철소 부생가스 (BFG, COG, LDG)	



❖ 발전 현황

구 분	현 재	2013년 12월
발전량	3,000 천MWh	6,000 천MWh
당사 자급율	37 %	56 %
일관제철소 자급율	108 %	123 %

※ 6,000 천MWh = 166만 가구 사용량 (1가구 300 KWh/월)

3 LG전자

□ 기본개념

○ 에너지관리시스템(GEMS), 고효율설비(EHP + LED)를 도입하여 편의점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 보급

* GEMS : Green Energy Management System

□ 주요 적용 시스템

○ **(GEMS)** 편의점 내 각 설비의 전력사용 현황 모니터링 및 절전운전 기능이 탑재된 통합 플랫폼

○ **(고효율설비)** 폐열회수 냉장 및 냉·난방 겸용 EHP, LED조명 교체 등의 에너지절감 설비 설치

□ 적용 사례

○ GS25 편의점 1개소(73㎡)에 에너지절감 통합솔루션 적용* 결과 연간 전력사용량의 29% 절감(LG전자 자료)

* 점포 투자비 2871만원, 전기요금 절감액 연간 344만원, 투자비회수기간 약 8.3년

< 편의점 적용 효과 >

구분	전년동기대비 절감량('11.1월~11월)	절감율	절감액
편의점 전체	37,688kWh	29%	344만원
조명	4,429kWh	40%	41만원
냉장 + 공조	33,259kWh	43%	303만원

□ 향후 기대 효과

○ 편의점(20,000개소), 슈퍼체인 (1,200개소)에 적용할 경우, 매장당 7.7kW(기존 21.7kW→ 변경 14kW)의 절감효과를 기대

○ 전력소비구조가 유사한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확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참고 4 국민발전소 절전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 산출전제

○ 금년 추정치와 부하관리 이후 금년 실적을 차감하여 절감효과 산출

○ 전년 실적에 온도변화 및 경제성장 효과를 반영, 금년 추정치(BAU) 산정

* 절전효과 = (전년도 실적+경제성장 보정효과+온도보정효과)-(금년실적+부하관리효과)
  - 온도변화 : 전년동기대비 변화에 대한 전력소비 변화 탄성치를 곱하는 방법
  - 경제성장 : 총발전량과 국내총생산 자료만을 활용하여 최소 자승법에 의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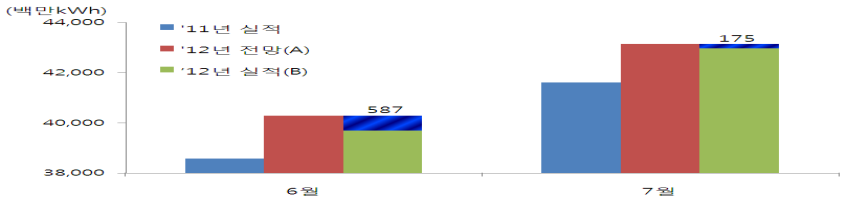
□ 절감효과

① **(전력소비절감량)** 6~7월 기간 중에 약 7억 62백만kWh 절감

* LNG복합 거래단가('11년 141.36원/kWh) 환산시 약 1,077억원 절감효과

○ 절감량은 6월 총 402억kWh 중 5.9억kWh(1.4%), 7월에 총 431억kWh 중 1.7억kWh(0.4%) 수준

* 6월에는 829억원, 7월에는 약 248억원 절감효과



(단위 : 백만kWh)

구 분	6월	7월
'11년 실적	38,564	41,610
'12년 전망(A)	40,281	43,144
'12년 실적(B)	39,694	42,969
절감효과(A-B)	**587**	**175**

② **(피크시간대)** 시간대별로는 피크시간대(14시~17시) 집중되어 6월에 166만kW, 7월에는 약 62만kW 절감효과

(단위 : 만kW)

구 분	6월	7월
1시 ~14시	62	24
14시~17시	**166**	**62**
17시~24시	84	4

* 시간대별 절전효과는 발전량을 평균전력으로 환산한 개념

참고 5 하절기 국민 절전의식 조사결과 (에너지관리공단)

◈ 전국 16개 광역시도 거주 19세이상 남녀 1,000명대상 조사
('12.8.4~8.5(2일간), 에관공(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전력부족 문제에 관한 국민 인식

○ 우리나라 전력부족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중 **9명은 '심각하다'**고 응답

<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부족문제 심각성 정도 인식 (단위 : %) >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계
89.7	8.5	0.7	1.1	100.0

○ 우리나라 전력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전기절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4%'**로, 거의 모든 국민이 전기절약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우리나라의 전력상황 고려시 국민의 전기절약 필요성 정도 인식 (단위 : %) >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계
97.4	1.9	0.4	0.3	100.0

○ 전기절약 실천정도에 대해 **'실천한다'**는 응답이 **33.3%**로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5.4%로 조사

☞ 절전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실제로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었음

< 국민의 전기절약 실천 정도 (단위 : %) >

실천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지 않다**	모름/무응답	계
33.3	**65.4**	1.3	100.0

○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이 많은 편이다'는 응답이 56.8%, '비슷하다'가 26.7%, '적은편이다'가 5.9%

<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 수준 (단위 : %) >

많은 편이다.	비슷하다	적은 편이다.	모름/무응답	계
56.8	26.7	5.9	10.7	100.0

○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이 39.1%, '비슷하다'가 27.8%, '낮은 편이다'가 20.9%

<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 (단위 : %) >

높은 편이다.	비슷하다	낮은 편이다.	모름/무응답	계
39.1	27.8	20.9	12.1	100.0

□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캠페인 인지도

○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이라는 절약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21.9%**, '모르고 있다'가 '77.9%로 조사

<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인식 (단위 : %) >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계
21.9	77.9	100.0

○ 알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절약 캠페인이 **절전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83.8%**, '도움되지 않았다'가 15.8%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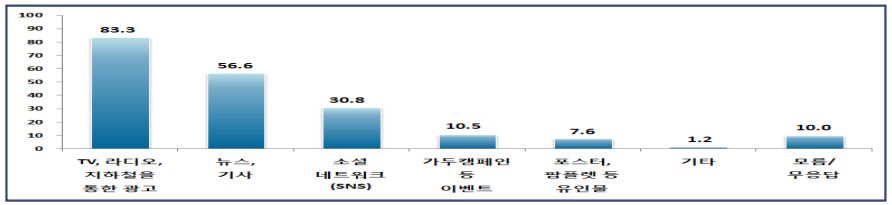
<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캠페인 도움 정도 (단위 : %) >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83.8	15.8	0.4	100.0

□ 국민들의 전기절약 실천을 위한 홍보 방안

○ 정부의 전력 대책이나 전기 절약을 위한 홍보물을 주로 접하는 경로로 '**TV광고**'라는 응답이 **80.0%**, '언론보도'(44.6%), '인터넷·모바일'(30.0%), '옥외광고'(13.7%), '길거리 캠페인'(11.6%) 순으로 조사

< '정부의 전력대책/전기절약 홍보물' 접촉 경로(중복응답) (단위 : %) >



□ 문열고 냉방하는 행위 단속 필요성

○ '**문열고 냉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전력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80.8%**, '도움이 안된다'가 18.1%

< '개문 냉방영업 단속'의 도움 정도 (단위 : %) >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80.8	18.1	1.1	100.0

< 참고 ① : 주요국 1인당 전력소비량 비교 ('10년 기준, IEA) >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OECD평균
1인당 전력소비량(kWh/인)	9,197 (100)	7,868 (86)	6,472 (70)	12,264 (133)	7,617 (83)

< 붙임 : 1인당 전력소비 증가 추세 국제 비교 >

◎ **電力소비**가 **총량 규모** 뿐만 아니라 **1인당 규모**로도 **주요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요금현실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

○ 부문별로는 특히 **가정·상업부문**에서 주요국보다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중**

< 1인당 전력소비 증가율 ('00~'10년, IEA) >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OECD**
1인당 전력소비(%)	**4.9**	0.2	0.7	△0.3	△0.6	0.4

< 부문별 전력소비 증가율 국가별 비교 ('00~10년) >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OECD**
산업	3.2	△3.2	△0.5	△3.9	△1.7	△1.6
상업	**8.1**	1.8	1.1	1.5	△0.2	2.1
가정	**5.0**	1.2	0.7	1.5	1.0	1.7

< 참고② : OECD 국가 전기요금 비교 ('10년 기준, $/kWh)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OECD평균
주택용	**0.083 (100)**	0.232 (280)	0.165 (199)	0.199 (240)	0.116 (140)	0.157 (189)
산업용	**0.067 (100)**	0.154 (230)	0.106 (158)	0.121 (181)	0.068 (100)	0.110 (164)

참고 6 주요시설 전력소비 실태 조사 결과 (한전)

□ (조사대상) 한전의 자동원격검침* 고객중 절전홍보 대상 고객 1,558호

* 자동원격검침(AMR : Automatic Meter Reading) 유선,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자동 원격검침하는 계량방식('11말 총 1,849만호 중 68만호<3.7%> 자동원격검침)

□ (전력사용행태) 전국의 주요 은행,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력사용량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시현

* '12. 6월 총 발전실적은 1.1% 증가하였으나 ① 전국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6월 6% 감소 ② 전국 시중은행은 6월 2% 감소

○ 전국 백화점, 쇼핑센터 (280개) (단위 : kWh)

구 분		5월	6월
'11년 대비	증가량	-1,163,234	-2,450,681
	증가율	**-3%**	**-6%**

○ 전국 시중은행 (77개) (단위 : kWh)

구 분		5월	6월
'11년 대비	증가량	225,537	-65,086
	증가율	**6.6%**	**-2%**

□ (절전의식 조사결과) 전력사용 감소고객(280호)의 설문조사결과, ① 전년대비 사용량 감소원인과 관련하여, 절전홍보 등 정책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 ② 금년 전력공급 상황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의 87%가 전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

< 한전 실태조사 개요 >

○ 기 간 : '12. 7. 16 ~ 7. 18 (3일간)
○ 방 법 : 전화조사, 방문조사
○ 시 행 : 한국전력(14개 지역본부 수요관리부서)